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신학 전문, 세션 9, 삼위일체 교리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신학 또는 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삼위일체를 완성하다입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은혜로우신 성부, 성자, 성령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구속받은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합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말하고 싶은 일곱 가지 요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성경이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것을 결코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데, 야고보서 2장과 디모데전서 2:5에서 보았듯이요. 그런 다음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고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령은 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리를 세 가지 다른 원리로
마무리합니다. 세 신성한 인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개입니다. 즉, 우리는 결코 인물을 분리하지 않지만,
인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별개성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놀랍게도 성경은 신성한 인격들이 서로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인격의 동등한 신성 교리의 씨앗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그들이 서로 내주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들이 통일성과 평등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고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됩니다. 한 분의 살아 계신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 세 인격, 세 가지 모드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더욱이, 오직 한 분의 신이 계시므로, 이 세 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신이나 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인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인격이 모두 창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봅니다.

세 분 모두 구원에도 참여합니다. 세 분 모두 창조에도 참여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들,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아들 이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3장,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와 별개로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언어입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언어입니다. 그분 외에는 창조된 것 중 하나도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를 통해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콜로새서 1장은 다른 말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콜로새서 1:15, 그는 아들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더 높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시편 89:27, 나는 그를 내 맏아들로 삼을 것이요, 다윗의 위대한 후손이요, 메시아 왕이로다. 나는 그를 내 맏아들로 삼을 것이요, 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왕이로다. 그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맏아들이니,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요한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다시 한번 창조의 포괄성이 명확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과 땅에서 창조되었으며, 창세기 1:1을 암시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 번째 범주를 제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전부입니다. 보이는 것, 땅과 하늘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천사와 하나님 자신.

더 나아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왕좌든 주권이든, 통치자든 권세든 증폭시킵니다. 즉, 그것은 천사들 사이의 어떤 종류의 구별, 아마도 계급,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단어들은 바울에서 천사들에 대해 사용되었고, 때로는 반항적인 천사들에 대해 사용되었지만,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항상 천사들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지상의 통치자들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용어들 중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락에서 특히,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물리치는 다른 맥락에서, 그들은 여기서 천사들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를 통해 그리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포함입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16의 시작, 모든 것은 그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16의 끝.

그보다 더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아들은 창조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오직 신만이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바로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른 후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이요, 그는 또한 시작입니다. 그는 오메가이고, 그는 또한 알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가 아들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곳과 더 많은 곳의 성경, 고린도전서 8:6의 중요한 구절은 아들이 창조에 참여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격의 세 인격이 모두 창조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피조물 구분은 성경에서 기본적이고 일관적입니다.

우리는 결코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피조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 땅에서 영광을 받고, 거룩해지고, 완전히 구원받고, 부활하고, 변형된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남을 것입니다. 사실, 그 창조자-피조물 구분은 영원이 결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자-피조물 구분 때문에 결코 신에 대한 지식이나 신의 경이로움을 고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회의론자들의 비판과는 달리, 천국, 즉 새 땅에서 부활한 삶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흥미롭습니다. 성령도 창조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보시다시피, 그 인격들은 존재와 활동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표면 위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창세기 1:2). 옴은 옴의 해석학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 목사님은 미주리주 세인트찰스에서 밴 리의 은혜의 언약을 설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설교하십니다. 옴기의 대표적인 설교를 하려면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기서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계시의 교리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옴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지만, 규범성은 어떠한가? 신학은 어떠한가? 그는 옴이 말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성경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때때로 사탄이나 악마의 말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옴의 친구들이 사탄적이거나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나 악마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때로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신학은 예수의 지상 사역 동안 제자들의 신학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감과 무오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옴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옴의 친구들의 신학을 은행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 장들에서처럼, 그것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리고 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옴기 33:4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들었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숨결, 바람 또는 영을 의미하는 단어는 같습니다. 적어도 한 단어는 세 가지 모두를 위한 의무를 지닙니다. ruach.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들었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욥은 말했습니다. 성령은 욥의 창조에 관여했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관여했습니다.

시편 104편 20절은 어떨까요? 인용하자면, 당신이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고, 시편은 모든 동물을 열거하고, 당신은 땅의 표면을 새롭게 합니다. 그 구절은 창조와 섭리를 모호하게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신은 둘 다의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점은 세 인격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창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서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 아들이 첫 번째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를 통해 창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아버지는 첫 번째 인격입니다. 세 인격은 영원부터 동등하게 하나님이며, 권능과 영광과 신성에서 동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첫 번째 인격이며, 아들을 통해, 아들에 의해 창조합니다.

신약성서는 그런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창조에서 아버지의 일꾼입니다. 게다가 세 인격 모두 구속에 참여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택함을 받은 자들, 망명자들, 폰투스,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저는 E SV로만 볼게요.

베드로전서 1:1, 2.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티니아의 다섯 로마 속주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유배민들에게 보낸다. 곧 택함받은 유배민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에 따라,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림을 받기 위해 택함받은 자들에게 보낸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이 있기를 빈다.

세 분 모두 지금 구원, 즉 구속에 참여합니다. 아버지는 미리 알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고, 아들의 피가 믿는 자들을 뿌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세 분 모두 구속, 즉 구원의 신성한 일을 합니다.

천사나 인간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성부는 선견자입니다.

아들은 성육신하여 피를 흘리고 희생의 죽음을 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배경은 구약성경에서 황소와 염소, 어린양의 피입니다. 즉, 그의 폭력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이는 최고의 희생입니다.

모든 제사의 제사는 히브리서 9:15에 따르면 구약의 제사에 효력을 부여합니다. 네, 저는 잘못된 증거 텍스트를 영원히 테이프에 담고 싶지 않아서 체크합니다. 비디오테이프에 담는 건 끔찍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비록 세 인격이 모두 성경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하지만, 성령이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구원에 관해 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알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고, 아들의 피는 뿌려서 깨끗하게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예지는 단순히 예지력이나 신이 미리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자면, 신은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신은 완벽한 예지력, 완벽한 단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철학자들은 부릅니다.

하지만 그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글에서 바울이 구원의 예지에 대해 다룰 때, 그것은 사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사랑을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한다면 언약적 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표시하시고, 그의 사랑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망명자들입니다.

그건 그렇고, 매우 유대적인 언어지만, 4장 초반에 이들은 이방인 독자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살펴본 모든 주석은 베드로전서 4장 초반에 나오는 타락한 생활양식이 베드로전서 4:3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방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즉 음란, 정욕, 술 취함, 난교, 술자리, 무법적인 우상 숭배를 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무도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1:1과 2에서 인용 부호로, 신약이 자주 그러하듯이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베드로전서 2:9~10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핵심 명칭은 출애굽기 19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출애굽기 20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바로 전인데, 바로 이를 기독교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식별하는 데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내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대한 제 이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인 민족적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큰 수확을 거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이스라엘, 모든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신약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확실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고 있으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향해 더 많은 수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택함받은 유배민들을 미리 아십니다. 그는 그들을 미리 사랑하십니다.

오직 신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두셨고,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30, 31.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르신 자들을 그는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그분께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저는 그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주디스 건드리 울프는 그녀의 책, 바울과 인내, 절정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뒤로 뺏어나갑니다.

그 누구? 앞으로 뺏어나간다. 그도. 청교도들이 말했듯이, 사슬의 고리와 같다.

사실, 나쁘지 않아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신이 저자예요.

그는 미리 알고, 예정하고, 부르고, 정당화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모두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해진 것만큼 훌륭하며, 그분이 사랑하신 자들은 영광을 받지 못할 리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아십니다.

그는 그들을 미리 사랑합니다. 그는 그들이 믿기도 전에 언약의 사랑을 그들에게 두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택하고, 아들이 구속하고, 성령이 적용하는 구속적 역사적 순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믿는 수신자들을 미리 사랑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죽었을 때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을 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거룩함에서 거룩함은 초기, 점진적, 최종적입니다. 여기서는 초기입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이 아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그들을 성도로 구성하셨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믿으라고 어디에 쓰여 있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거룩함에서,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려지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명령이며, 베드로는 바울이 때때로 그러하듯이 믿음을 복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순종과 순종이 믿음과 신앙을 의미하고, 불순종과 불순종이 불신과 불신앙을 의미하는 곳을 보여드릴 시간이 없지만,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전서 4:17입니다.

구약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악의 심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베드로전서 4:17).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때때로 성경에서 언급되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언급됩니다(데살로니가후서 1장).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불순종, 불순종으로 징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아버지께서 미리 사랑하신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복음에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따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요점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해석에 빠져들지만, 요점은 세 분이 모두 구원의 일을 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만 사랑하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아버지와 아들만 때때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여기서 성령은 초기 거룩함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 결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순종이 생깁니다. 복음의 초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분의 피로 뿌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미리 사랑하시고, 성령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따로 두셔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서 제시된 대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명령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정화, 정화, 죄 사함, 예수의 피로 뿌림, 주님의 단번의 희생,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고 , 아들의 피는 정화하고, 뿌립니다.

인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 분의 신이지만, 그들은 구별됩니다 . 우리는 그들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없습니다 . 성령은 피가 없고, 아버지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표현에 무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는 성경이 구별하고, 인격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정말 빨리,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이런 역할 중 일부를 보는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1:3~14 는 그리스어로 거대한 문장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배적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서 1:3-14의 목적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에 대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3절.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6절. 열둘,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14,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구절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신학이 완벽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렇지 않지만,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을 드리도록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학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교리의 목적을 살고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몇 년 전, 성경과 진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DA 카슨이, 돈 카슨이 성경의 통일성과 체계적 신학의 가능성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는 1800년대에 성경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본문에 대한 믿음의 전제가 생겨났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성경이 끔찍하게 분리되었고, 충분히 나빠졌고, 충분히 나빠져서 체계적 신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이 신약의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된 하나님의 한 말씀이 아니라면 체계적인 신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콜로새서의 문제점은 개별 책을 연구하거나 심지어 성경 신학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일관되고 통일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신학의 가능성은 구약과 신약의 영감받은 성경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곳에서 이런 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루가 신학, 그렇죠. 루가를 연구하고, 아마도 행동하고, 신학적 원리를 도출하는데, 교수의 생각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요한 신학이나 바울 신학, 베드로 신학과 일관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글에서 배울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이 체계적 신학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움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가르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3-14에서 이 위대한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이며, 우리는 세 인격이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선거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예정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5절).

여기서 제가 유혹하는 것은 완전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적 세 인격이 분리될 수 없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택하거나 예정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택하거나 예정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 중간쯤에 아들은 성경의 한 곳에서 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도록 정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노라. DA 카슨은 그의 책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서 이것이 요한의 세 가지 선거 주제 중 하나이며, 다른 두 가지는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믿기 전에도 선행하거나 이전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그의 적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양이 아니지만, 그가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등등. 즉, 그것은 하나의 주제일 뿐, 주요 주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99번이나 100번 나타나지만, 하나의 주제는, 그것은 예정론적 주제인데,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부를게요, 그들은 믿거나 믿지 않기 전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나 불신은 실제로 그들의 이전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서 1:3, 4, 5에서 아버지는 택하시고 아버지는 예정하십니다. 아들은 그 안에, 7절에서, 그는 이전 구절에서 사랑받는 자라고 불리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을 얻습니다. 아들은 그의 피를 흘리고 아들은 구속 합니다.

아버지는 피를 흘리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피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오직 아들만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성령은 구속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들은 그의 희생적 죽음으로 구속하십니다.

성령이 역할을 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13절, 그리스도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약속된 성령으로 인장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보증, arabone, 아람어 차용어, 보증금이자, 그는 인장, sphragis, 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보증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장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봉 교리는 바울의 사소한 화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9과 20, 에베소서 4, 30,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1:13에만 나옵니다. 소유권에 대한 암시가 있지만, 주요 사상은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봉하시고, 성령으로 인봉하십니다. 아버지는 인봉이 아니고, 아들은 인봉이 아니고, 성령은 인봉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요약하고 가르치면, 세 인격은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따라서 분리될 수 없고, 그들의 작업에서 그들은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예정을 선택합니다. 그는 성화를 선택하는데, 지금 당장 설명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 골로새서 1장의 최종 성화와 평행합니다. 그는 입양을 위해 예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것이 최종 입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의 그의 폭력적인 죽음으로 구속하고, 아버지는 믿는 자들을 인봉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봉하고, 그 인봉은 성령입니다.

인장은 신격의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지만, 서로 다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예외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내가 바르게 말하면 울고, 그래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명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단어는 마태복음 27:46을 의미합니다. 분리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이의 존재론적 분리가 아닌가? 아니, 그것은 불가능하다. 신은 삼위일체다. 그는 하나 안에 셋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외침은 실제로 아버지 와 아들 사이의 분리를 가리키지만, 존재의 질서, 존재론의

질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 세상의 죄를 짊어졌을 때 교제의 일시적인 분리입니다 . 저는 그것을 희석하거나 실제보다 덜 끔찍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부터 아버지 와 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에서 말했듯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재의 분리가 아니라, 교제의 일시적인 분리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몇 시간 후에,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끔찍한 소외, 교제의 끔찍한 분리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비롭게, 한정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통해, 무한하고 한정된 사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3시간 만에 영원한 형벌에 해당하는 진정한 형벌을 겪습니다. 그것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안은 그가 여전히 십자가에 있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중 대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신-인간 아들의 일시적인 고통을 그를 거부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잔의 이미지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한된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며, 그는 영원한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세 인격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19 .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안에서, 그의 아들을 통해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

그리고 더 나아가, 적어도 한 번은 영이 속죄 사역에 참여합니다. 영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지만, 예수의 희생을 절대화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9:14. 인격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인격을 구별하십시오. 항상. 인격의 통일성을 강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 인격을 분리하지 않지만, 구별하고 혼동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성육신하지, 아버지나 영은 아닙니다.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지, 다른 두 인격은 죽지 않습니다.

세 분 모두 예수님의 세례 때입니다. 그가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시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16-17. 삼위일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성경은 그 분을 혼동시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합니다. 에베소서 1:4. 그리고 저는 11절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의 뜻의 조언에 따라 행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예정되어 상속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합니다. 에베소서 1:4. 그리고 11. 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습니다. 7절. 그는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구속하고, 영은

하나님의 인장으로, 구속의 날까지 믿는 자들을 보호합니다. 에베소서 1:13. 14. 에베소서 4:30.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신입니다. 아들은 신입니다. 성령은 신입니다.

삼위일체적 세 인격은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서로 내주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압도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공식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손을 잡고, 바로 그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주제는 삼위일체적 세 인격의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서로 안에 있거나, 서로 안에 거주합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요한의 습관입니다. 그는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작별 담화에서 영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영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할 것이라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영은 요한 복음에서 더 일찍 활동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상호 내주라는 개념을 공식화할 때 그는 영을 제외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영을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그의 주요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요한의 생각을 체계화하고 그의 이원론, 즉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가르침을 본격적인 삼위일체 교리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체계적 신학의 과제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요한은 놀라운 일을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하거나 서로 안에 살거나 서로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동의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시고, 그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10. 빌립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니라.

내 안에 사는 아버지는 그의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10. 예수님은 요한복음 17:22-23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드렸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고, 반쪽 마음을 가진 제자들. 베드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을 막고 싶어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즉, 그들의 공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목이 뻗뻗한 민족이었을 때, 제자들은, 사실은 배신자이지만, 제자들은 멈추고 거의 믿지 않는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는 "너는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너는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네 동료들보다 우월하다.

아니요, 그는 말합니다. 육과 피가 이것을 당신에게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베드로는 선지자로서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아는 것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7:22-23.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드렸사오니, 저희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고,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 곧 성육신하신 아들 안에 계십니다.

외삽법으로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이 상호 내주, 이 페리코레스시스, 이... 다른 용어를 잊고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나올 겁니다. 페리는 그리스어로 페리코레스시스입니다.

라틴어로는 할례(circumcision)입니다. 할례 주위의 원주 또는 perichoresis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영원한 기능입니다. 그 인격들은 영원히 서로 안에 거합니다.

인격은 영원히 서로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22-23), 예수는 또한 자신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와 아버지가 서로 안에 계시다고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은 영을 빼먹었습니다. 체계학은 이와 비슷한 말을 해야 합니다. 존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가 영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에 근거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영 안에 있고, 영이 아들 안에 있고, 영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에서 공정한 추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아버지는 그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 자체로 인해 믿으십시오.

이 교리가 당신에게 너무 무겁다면, 기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어쨌든 나를 믿으십시오. 하지만 사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 이것은 땅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 하지만 그는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잉태된 순간부터 그는 신인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자궁 속의 신아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 저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제 안에 계시요. 사실, 요한복음 17:20과 21을 읽었는데, 제가 앞서 읽은 구절들보다 먼저 읽지 않았어요. 저는 이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통해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또한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세상이 당신이 내게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여기에는 추론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이 이 상호 내주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크게 추구할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biblicalearning.org에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자신의 상호 내주를 믿는 자들과 우리의 상호 내주에 비유하신다는 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신자들과 아버지 와 아들. 이걸, 어,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분명히, 유사점이 있어요.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주 교리입니다.

우리는 특히 성령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약 6번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약 8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 인격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신자들 안에 거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 안에 거하는가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확실히 피조물적인 의미이고,

신은 자신 안에 거합니다. 삼위일체적 인격들은 서로 안에 거하지만, 본성상 신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삼위일체적 인격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신성한 인격의 상호 내주성은 독특합니다. 우리는 신이 되지 않지만, 신성한 삼위일체는 우리와 그들의 사랑과 생명을 공유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안에 사시거나, 다르게 말하면, 서로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둘 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체계적인 움직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요한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만 거하고 성령에게는 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신성한 삶의 일부가 아닌가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명시적 진술을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해석적으로, 우리는 이 추론을 도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안에 존재합니다. 이해하시죠? 신은 삼위일체입니다.

그게 바로 신입니다. 그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동료 일신교도, 즉 유대인과 무슬림이 신이 하나라고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말할 때, 누구도 알아보거나 모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면서, 그들은 영원부터 신이 외로웠다고 가정했습니다. 신은 영원부터 외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신은 아담과 이브를 필요성 때문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 자신의 관대함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창조 이전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신성한 삶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세 인격은 신성한 삶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각 인격, 즉 성부, 성자,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나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본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그들은 서로 안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영원히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신성한 인격의 상호 내주성은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페리코레시스, 그리스어, 할레 또는 공동 내재라고 부르는데, 둘 다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한 본질과 서로 안에 함께 내재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내주합니다. 방금 배운 것을 완전히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그다지 훌륭한 변증가가 아닙니다. 저는 역사 신학을 전공한 단순한 주해 신학자이며, 철학적 가정이 체계적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철학을 충분히 알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영원히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방식입니다. 이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션은 삼위일체에 대한 마지막 세션이 될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고 평등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신학 또는 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삼위일체를 완성하다입니다.